화장품업계, 위상 되찾나… 명동·성수서 점포 경쟁력 강화

올리브영 글로벌 특화 매장 선봬
오프라인 최초 '서비스 라운지'
글로벌 K뷰티 O2O 플랫폼 구축

미샤 명동 메가스토어점 리뉴얼
에이블씨엔씨 모든 브랜드 체험

아모레퍼시픽 성수동 팝업스토어
바이탈뷰티·이니스프리 등 열어

서울 명동의 '올리브영 명동 타운' 매장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색조 화장품을 체험하고 있다. /올리브영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며 명동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들이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관광 상권 대표 매장인 '올리브영 명동 타운'을 글로벌 특화 매장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명동 상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약 840% 증가했다. 특히 기존 유커 중심의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영미권, 동남아,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매장을 찾으면서 고객층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리브영은 K뷰티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외국인 구매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리브영 명동 타운'은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약 3000명이고 방문 고객의 약 90%가 외국인 고객이다. 올리브영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안내 서비스를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에서도 '올리브영 명동 타운' 전용 페이지를 통해 층별 안내, 매장 지도, 외국인 인기 브랜드 위치 등을 3개 국어로 안내한다.

또한 올리브영은 '명동 타운' 내 모든 상품의 전자라벨에 상품명을 영어로 표기해 상품을 쉽게 탐색하도록 했다. 매장의 가장 전면부에는 'K뷰티 나우존'을 설치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마스크팩과 선크림 등을 비롯해 매월 올리브영이 선별한 K뷰티 상품을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매장 최초로 '명동 타운' 매장에 '글로벌 서비스 라운지'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글로벌몰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웰컴 기프트'와 '글로벌몰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향후 해외에서도 글로벌몰을 통해 지속적으로 K뷰티를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올리브영은 매장과 글로벌몰이 이어지는 '글로벌 K뷰티 O2O(온·오프라인 연계) 쇼핑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도 기존 매장 리뉴얼과 신규 매장 추가를 통해 관광 특구이자 국내 뷰티 1번지인 명동을 베이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샤는 지난 9월 서울 명동 메가스토어점을 리뉴얼했다. 특히 명동 메가스토어점은 미샤를 비롯해 어퓨, 초공진, 스틸라, 셀라피, 라포티셀까지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지난 9월 매장 리뉴얼 후 한 달 동안 일평균 매출이 전월 대비 약 40% 상승했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블씨엔씨는 상반기 매장 순매출이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월평균 313% 증가했으며 명동 상권에 신규 매장을 추가로 개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는 오는 5일까지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주제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에는 '이니스프리'가 '이니스프리 디아일 성수'를 열었다.

현재 성수는 서울에서 주목받는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성수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기준 5.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수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2023년 상반기 기준 기타 서비스업, 패션잡화, 일반음식점 순으로 기타 서비스업에 팝업 스토어로 활용되는 공간대여가 포함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패션그룹형지, 최준호 총괄 부회장 승진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의 장남
경영 혁신·신사업 육성 실적 개선
'글로벌 형지' 확대… 선임 배경 작용

패션그룹형지가 2세 경영 체제를 구축하며 '글로벌 형지' 실현에 나선다.

패션그룹형지는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사장(사진)이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준호 총괄 부회장은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의 장남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23개 브랜드, 전국 2300여 개 매장에 대한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이번 선임 배경에는 경영 혁신 및 신사업 육성을 통한 실적 개선과 미국, 동남아,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형지' 본격화가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최준호 부회장의 '글로벌 형지' 실현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까스텔바작 대표이사 선임에 이어, 같은 해 12월 패션그룹형지 사장직을 겸한 바 있다.

또 그는 앞서 지난 2011년 패션그룹형지에 입사해 10년 동안 구매생산 부문에서 실무 역량을 쌓았다. 이후 지난 2020년 공급 운영 부문 대표 역임 등 재무 부문까지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까스텔바작은 올해 2분기 연속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수익성을 개선시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7.6% 성장했다.

패션그룹형지도 지난 2022년 연간 영업이익 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4억원의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형지엘리트의 경우 최 부회장이 추진한 신사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지난 2022년 대비 73% 신장한 연매출 929억원을 기록해 오는 2024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폴란드,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함께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에 동행했다.

최준호 부회장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계열사와 협력해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신사업 육성과 해외 사업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음료 출시

스타벅스 코리아가 1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출시한 프로모션 음료(토피 넛 라떼,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 말차 크림 브륄레 라떼, 더블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리저브 카테고리 제조 음료)와 사은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

셀트리온헬스케어

UNDP 항암제 조달 수주
개발도상국 의료복지 지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개발도상국 환자를 위한 의료 복지 향상에도 앞장선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개최한 항암제 조달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2023년 말에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트룩시마(성분명 : 리툭시맙)와 베그젤마(성분명 : 베바시주맙)를 공급하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트룩시마와 베그젤마가 개발도상국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치료제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탄저백신 국산화 연구 나서

'GC1109' 품목허가신청서 제출

GC녹십자가 탄저백신 국산화를 연구하며 국가 공중보건 안보 증진에 나서고 있다.

GC녹십자는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탄저백신 'GC1109'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탄저백신 'GC1109'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백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으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이 된다.

탄저균에 의해 발병하는 탄저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률이 97%에 달하는 1급 법정감염병이다. GC녹십자는 지난 2002년부터 생물테러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탄저백신 개발을 연구했다.

특히 GC녹십자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에서 백신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GC녹십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따라 동물시험을 수행했다. 동물시험 결과,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 시점에도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 유지됐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 실사 통과

오송 스마트 공장서 실사 진행
펙수클루·엔블로 '지적사항 없음'

대웅제약이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의 실사를 단 한 번에 통과하면서 중남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은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신규 허가를 위해 진행된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의 품질관리기준 실사에서 '지적사항 없음' 인증 결과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월 4일부터 나흘 동안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 실사단은 대웅제약의 오송 스마트 공장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의약품 품질관리를 비롯해 데이터 완결성,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 관련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심사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으로부터 4단계 인증을 받은 대웅제약의 스마트 공정 시스템이 이번 실사에서도 '데이터 완결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했다.

대웅제약이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의 실사를 위해 오송 스마트 공장의 중앙통제실을 공개했다. /대웅제약

이와 관련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오송 스마트 공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고 단계인 5단계로 만들겠다"며 "나아가 오송 공장을 혁신신약 전진기지로 삼아 오는 2027년 펙수클루의 100개국 진출과 오는 2030년 엔블로의 50개국 진출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